

## <세계와 미래의 꿈을 여기에> 체험학습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7일(목) 20:24

오늘은 임실에 있는 119안전체험관과 치즈테마파크 체험을 갔다.  
먼저 임실에 있는 119안전체험관에서 360도 도는 자동차를 탔다.  
조금 기다리다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자동차를 탔다.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차가 돌아가는 것이었다.

무섭기도 하고 공포감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그런지 목이 무지 아팠다.  
옆에 있던 키가 큰 재성이 형은 자동차 천정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는데 걱정도 되었지만 너무 웃겼다.

체험관에서 지진체험, 태풍체험, 안전 영화 등을 보았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체험이었다.

다음으로 치즈 만들기를 했다.  
선생님이 치즈 만드는 방법과 무슨 재료가 있는지 알려주셨다.  
알려주신 다음에 치즈 만들기를 하였다.  
그릇에다 잘은 모르지만 우유 같은 것을  
조금 넣었는데 푸딩같이 변했다.

그것을 갈라보았는데 푸딩 같은 것과 물 같은 것이 있었다.  
푸딩 같은 것은 커드이고 물 같은 것이 원유였다.  
치즈를 다 만들고 치즈를 먹어봤는데 짹짹하면서 고소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라 기분이 흐뭇하였다.

치즈체험도 끝이 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퀴즈를 냈다.  
난 마지막에 문제를 맞혀서 저금통을 얻었다.  
학교로 오는 동안에도 계속 기분이 좋았다.

/무풍초등학교 6학년 박찬용

url :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26&idx=119227](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26&idx=119227)

Copyrights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